

기독교인의 관대함

핵심 구절: “너희가 밭에서 추수할 때, 단을 하나 남겨 두더라도 되돌아가서 그것을 주워 오지 말라. 그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신명기 24:19

선별된 성경 구절:

신명기 24:14-22

신명기에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의 민족에게 주신 지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침 중 하나가 오늘의 핵심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한 설명은 바로 앞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 내셨으므로,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신명기 24:18

이스라엘 백성은 무력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밭에 남겨진 것을 그들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줍게 해야 했습니다. 이 지침의 이유는 그들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무력하고 궁핍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닮은 모습의 한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도 이 원칙을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은 가난하고 무력한 인류를 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로 어겼을 때, 내려진 형벌은 죽음이었고, 이는 그 후로 이어지는 모든 세대의 인간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창세기 2:16, 17).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불완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속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그를 위한 랜섬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시편 49:7; 51:5).

오직 죄가 없고 완전한 인간의 삶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아담이라는 완전한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예수라는

완전한 인간의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1:23; 로마서 5:12, 19).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시어, 그분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한 랜섬”으로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게 하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구성원을 구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16,17; 디모데전서 2:5,6; 베드로전서 3:18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을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8:35, 36; 고린도전서 15:22).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때로는 종교와는 전혀 무관하지만, 질병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힘든 삶의 경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8:22).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명령에 나오는 “이방인, 고아, 과부”와 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믿을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에 대해 눈멀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과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진리의 “씨앗”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부활에 대한 믿음과 곧 온 땅에 임할 놀라운 왕국의 축복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21, 22; 요한계시록 21:1-5). 그들은 지금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심은 진리와 희망의 씨앗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싹트게 될 수도 있습니다.